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사목회장 영광식 니콜라오 (510) 332-8782 email : myoungkwangsik@gmail.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금 휴무 선종봉사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연중 제 22주일 8월 30일 미사 전례 >

[입 당 송] 시편 86(85),3.5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대영광송>

[제 1독서] 예레 20,7-9

[화 답 송] 시편 63(62),2.3-4.5-6.8-9(◎ 2ㄷ 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제 2독서] 로마 12,1-2

[복음환호송]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마태 16,21-27

[영성체송] 시편 31(30),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갑소사, 주님!” 예수님의 수난 예고를 듣고 수난을 반대하며, 베드로가 내뱉은 말입니다. 지난주 복음에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100점짜리 신앙고백으로 제자 중의 으뜸이 되더니, 오늘은 정반대로 사탄이라는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는 입으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주님 대전에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는 100점짜리 신앙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스스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동안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지금은 그나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혼란을 틈타 혹여나 우리는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봅니다.

참된 신앙이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달

거나 쓰거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에게서 인정받고 이해받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일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오늘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고백한 것처럼 “옥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어도” (예레 20,8)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값지고 소중한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갖은 노력과 희생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하며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해야” (로마 12,1-2)합니다.

신앙생활은 순간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욕심대로만 산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마태16,24) 합니다. 아멘.

김광근 도미니코 신부
춘천교구 총대리 겸 사무처장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8/30(일)	연 정번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생 주임신부	실버반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생 심데레사	심베로니카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9/2(수)	연 권바르톨로메오 1주기	박엘리사벳(귀출)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생 주임신부	실버반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아네스		생 심데레사	심베로니카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김케네스(관용)	김엘리사벳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9/3(목)	연 공동체 선종 연령	선종봉사회
	연 황마르코(문환)	가족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생 주임신부	실버반
	연 박안드레아(추웅)	가족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영국)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생 심데레사	심베로니카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김마리안나(정임)		생 공그레고리오(규화)	박클라라(영자)
	연 김모니카(영자)	유수산나(진숙)		생 흥테클라(경민)	익명
	연 천다나/박베드로	박마가렛	9/4(금)	생 주임신부	실버반
	연 김중화/이열자	정데레사(혜경)		생 심데레사	심베로니카
	생 주임신부	실버반		생 이요셉/마트로나 가정	차리디아(영화)
	생 심데레사	심베로니카	9/5(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생 심데레사	유수산나(진숙)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탈/스텔라
	생 권패트릭(혁진)	박마가렛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권마리안나(수지)	박마가렛		연 김아네스(순이)	가족
	생 카알 모이	박마가렛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제시카 페리	김엘리사벳		연 박요한보스코	박헬레나
	생 임스텔라 가정	임루시아		생 김데레사(종숙)	임클라라(은석)
9/1(화)	연 고야고보(명재)	임클라라(은석)		생 심데레사	심베로니카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생 송윤관/김다함	송베로니카
	연 김아네스(순이)	요아킴/안나회/실버반			

- 우리의 정성

- < 주일헌금 > \$1,935
- < 교무금 > \$1,300
강신호(3-5) 김영민(8) 강수영(9) 조병국(8) 박진영(4-8)
박호영(9)
- < 성소후원금 >
조병국(7-12)
- < Bishop's Appeal >
김영민(8)
- < 감사헌금 > 정석준
- < 빈첸시오 노숙자 돕기 후원금 > \$1,000
익명

< 2020 비전 목표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성당 시설이나 비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그레고리오(9/3) : 양천중, 최은용, 김강훈
- * 테클라(9/3) : 홍경민

<p>광고문의 사무실 510-553-9434</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 바디 Work</p> <p>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p> <p>자동차대출, 체크킹, 적금 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408) 260-0900</p>
<p>송 이 웅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 (510)504-9250</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213 Oakland</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데비 양(데보라) 보험 3484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408-261-1623 Lic.#0G51968</p>	<p>냉장고,세탁기,Oven,Dishwasher TV/Computer Repair (510)896-8348 LVM (510)304-7956 Cell 조승구 요셉</p>	 <p>+성지순례 전문+ ANGEL Tour &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대표: 이 경혜 안젤라 Tel. 213-999-6294 e-mail: angeltourtravel@gmail.com www.angeltourtravel.com</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